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제29회 학위수여식 개최 및 제33회 입학식 개최



▶ 학사모를 날리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



▶ 입학 선서 중인 우리 대학 신입생들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대학 뉴밀레니엄관 2층 소향아트홀에서 제 29회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학위수여식엔 많은 인원이 참석해 현장을 빛냈다.

학위수여식 사회는 우리 대학 03학번 영 어학과 졸업생인 임현정 아나운서가 맡게 됐다. 매끄럽고 편안한 진행이 학위수여식을 더욱 재밌게 만들었다. 해당 식은 ▲축하 공연 ▲개식사 ▲기도 ▲연혁 및 학사보고 ▲졸업식사 ▲격려사 ▲학위증서 수여 ▲상장 수여 ▲교가 제창 ▲폐식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박사학위 39명, 석사학위 95명, 학사학위 2,072명을 배출했다. 박사학위는 컴퓨터공학과, 영상콘텐츠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공학과 등 4개 학과다. 석사학위 졸업생은 일반대학원 74명, 디자인전문대학원 1명, 선교복지대학원 20명이며, 학사학위의 경우 9개 대학, 2개 학부, 45개 학과·17개 전공에서 각각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 선교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숙희

학원생을 주목할 만하다. 194년생, 80세의 나이로 석사학위 과정을 2.5년간 밟으며 학위 취득에 성공했다. 식 현장 속 사람들의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총장님께 직접 학사학위 수여를 받고 싶은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해야만 받을 수가 있었다. 직접 수여 받는 졸업생들은 총장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직접 수여 받지 못해도 폐식 이후 총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다. 총장님과 촬영했던 기념사진은 스튜던트 플라자 건물에 위치한 학생복지팀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은 "이번 졸업식은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있는 졸업생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며 "졸업생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인생의 승패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 힘, 지혜를 얻는 정도가 됐다. 졸업생들 인생 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졸업식사를 밝혔다.

폐식 이후 학생복지팀은 현장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졸업한 소감'에 대한 현장 인터뷰에서는 영상에 이어선 학과 졸업생에게 "본인 학과에 대한 만족감이나 우리 대학을 나와서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이 주어졌다. "동서대 영상에이메이션 학과는 이름이 꽤 알려져 있고, 나를 선택해도 회사에 많이 기여해서 이 대학에 다닌 게 많이 도움 된 것 같다. 교수님의 권유 등으로 대학원 진학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취업 고민은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입학식 관련 기사다. 지난 2월 28일 민석스포츠센터 1층 체육관에서 제33회 입학식이 약 20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대하게 거행됐다. 올해 입학식에서는 일관택 영화예술대학의 환영 댄스 공연으로 뜨거운 열기를 끌어내며 신입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

냈다. 신입생들은 각자 소속 단과대학이 소개될 때마다 환호성과 구호를 외치는 등 입학식장은 신입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환호로 가득했다.

이날 동서대학교 신입생들은 정식 입학 허가를 받고 "학교의 제반 학칙을 준수하며, 재학 중 배움과 수련에 힘쓰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장재국 총장은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서대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동서대학교에 맡겨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개교 32주년을 맞은 동서대학교는 짧은 역사 속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신명문대학'이자, 전 세계 유학생들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했다. 먼 훗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동서대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사를 전했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새학기 맞이 십자말풀이

								01↓
03→								
04→								
								01←
							02↑	
							02	

#가로풀이

01 부산 내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로, 정기적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02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는 00 영상 광고제 YCA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03 이 달의 영화 코너에 소개된 <7번째 내가 죽던 날>은 일상의 000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화이다.
04 '화이트데이가 고민된다면?'에 나온 선물은 비타민, 달걀 세럼, 리츠 니치 00다.

#세로풀이

01 우리 학교 대표 도서관의 이름은 00도서관이다.
02 학교 내 학생식당은 뉴밀레니엄관 15층, 000000 서관 4층(기숙사), 경영관 1층에 있다.
03 학위 수여식이 열린 곳은 뉴밀레니엄관 2층 00000이다.

보내실 곳 메일 : mylifec0936@gmail.com

※ 기간 : 3월 4일 ~ 3월 20일 (수) 18:00 까지
※ 당첨자 발표 : 3월 26일 (월) 개별 연락
※ 정답과 함께 응모자 이름, 전화번호, 학과, 학번을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총 5분에게 3만원 상당의 경품을 드립니다.

취업도 창업도 걱정 없어요!

해외취업 연수사업 6연속 A등급



▶ K-MOVE스킬 오리엔테이션

지난 1월 16일 화요일,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2년도 해외 취업 연수사업 '케이-무브(K-Move) 스킬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케이-무브(K-Move) 스킬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다. 모집 과정은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 과정', '미국 그래픽 디자이너 양성 과정', '미국 무역 물류 프리터에 양성 과정', '미국 IT융합 엔지니어 양성 과정',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 과정' 등이 있다.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2년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참여한 총 92개 운영기관 및 219개 연수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년 동안 해외 취업 사업을 추진해 온 우리 대학은 20여 개 국가로

1,600여 명의 학생을 파견했으며 전국 대학 최초로 케이-무브(K-Move) 스킬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16년에는 국무총리상, 2019년에는 청년 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 202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이며 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케이-무브(K-Move) 스킬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응시료, 항공료, 비자 수수료(일부)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국민 취업제도를 통한 추가 비용의 혜택도 제공된다. 혜택은 과정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학생/취업지원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커뮤니티 공지 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

이 날 정은영 학생 취업지원처장은 "해외 취업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 메이커 스페이스 디번치랩에서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에 관한 기사다.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우리 대학은 창업에 관심 있는 우리 대학, 동맹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Biz-R&D 창업동아리'를 모집했다. 이 창업 동아리는 동아리 당 활동 지원금을 5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탐방 및 해외 IR(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 기회, 창업 공간 제공, 창업 시 크라우드 펀딩 교육 지원 및 멘토링 기회, 우수 동아리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동아리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해 약 9개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창업 지원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사업, 메이크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강좌와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실전 창업 동아리 육성과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첫째,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 내의 창업 동아리에 가입한다. 창업 동아리에서는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창업 준비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본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준비해보자. 셋째, 사업자 등록과 실제 창업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2020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초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비)창업자, 대학생,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문의 : 창업 지원단 (051-320-2965)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회복적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

임혁 교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 취임

지난 2월 19일, 우리 대학 사회복지학과 임혁 교수가 2024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3대 회장에 취임해 학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1993년도부터 시작해,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1987년에 발족한 초대 '정신의료사회사업연구회'의 창립정신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993년도부터 시작해,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연간 320명의 정신건강 사회복지 전문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학회다.

해당 학회는 연간 4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축적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학문적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 원문은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책포럼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정신보건정책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포럼은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정책세미나는 연1회 이상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정신보건정책변화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임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넘어 의미 있는 삶과 안정적 주거 마련을 기본으로 하는 회복적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지원 서비스 확대, 정신 응급 대응체계 확보, 일상적 정신건강 돌봄 체계의 마련 등과 같은 현안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 사회복지학과 임혁 교수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의 구축을 선 포한 정부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대국민 정신 건강상담을 제공할 전문가 양성 및 훈련에 힘써 계획이라고 한다.

임 교수는 "학회 회장으로서 서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몸뚱이와 느낌을 잃지 않고 오간 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고백한 이영선 선생님의 말씀처럼, 명망 높은 학회 임원진들과 함께, 성심을 다하여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사령

- 국장 - 김소현 (방송영상학과·4)
- 부국장 - 정은영 (디지털미디어디자인·2)
- 정기자 - 조수빈 (방송영상학과·4)
 - 류길환 (방송영상학과·4)
 - 김재원 (방송영상학과·3)
 - 오현지 (방송영상학과·2)
 - 손준혁 (방송영상학과·2)

이상 3월 4일자

새 학기 시작, 이 동아리들은 어때?

신학기 기념 동아리 소개



▶얼라이브 동아리

▷사진 출처 - 얼라이브 인스타그램



▶레드콕스 동아리

▷사진 출처 - 레드콕스 인스타그램

새 학기가 시작됐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에 우리 대학의 많은 동아리들도 모집을 시작했다. 그중 새 학기를 시작하며 추천할만한 동아리는 어떤 게 있을까?

필름웍스 @filmwork_s

'필름웍스'는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상을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둔 영상 예술연구회다. 이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상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중앙 동아리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영상 제작을 다루는 동아리로서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가장 우선시할만한 동아리다.

얼라이브 @alive_sp351

'살아있는'라는 뜻의 형용사에서 착안한 동아리명인 얼라이브는 동아리 내 많은 오디션과 연습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 음악을 한다는 뜻이다. 1993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있는 동아리며, 락 밴드 활동을 위해 설립된 동아리인 만큼 활발한 밴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주기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며, 신입생들에게는 기준이 다소 엄격하지 않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면 고려해 볼 만한 동아리다.

BLACK @black_dsu

'완전한 해방과 활동을 열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로, 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댄스 동아리다. 춤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개설됐다.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에도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춤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할 만한 동아리다.

있따

'있따'는 '있따'의 변형으로 '있따'의 줄임말인 '있따'는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진 모임이라는 뜻이다. 만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동아리이며, 그림을 취미로 즐기고 뿐만 아니라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모집하고 있다. 학기마다 한 번씩 직접 그린 그림을 스튜던트 플라자에 전시한다.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고려해 볼 만한 동아리다.

타키온 @tachyon_dsu

타키온은 빛보다 빠른 입자를 말하며 흑백사진 동아리로서 빛보다 빠르게 예쁜 사

진들을 인화하기 위한 뜻을 담았다. 암실이 구비돼 있어 촬영부터 현상, 인화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다. 직접 찍은 사진들로 매년 2학기 전시회도 열고 있으니 사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할 만한 동아리다.

T.M.G @tmg_dsu

T.M.G는 'Too Much Game'의 약자로써 게임 동아리다. 흔히들 즐겨하는 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등의 인기 게임과 그 외의 RPG, 스톱, 보드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e스포츠 연합회 소속 동아리로 다양한 콘퍼트와 게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추천할 만한 동아리다.

블루돌핀스 @dsu._bluedolphins

'블루돌핀스'는 우리 대학의 상징인 돌고래와 파란색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미식축구 동아리로서 미식축구를 배우고 시합을 뛰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쉽게 접하기 힘든 미식축구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다. 미식축구에 관심 있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면 좋을 동아리다.

레드콕스 @red_cocks

'레드콕스'의 의미는 열정을 상징하는

레드와 배드민턴을 칠 때 사용되는 셔틀콕을 합쳐 '열정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실력을 향상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개설된 동아리이다.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다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여울 @dsu_yeoul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운동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태권도 동아리다. 얼라이브와 마찬가지로 1993년에 만들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여울'의 뜻은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며 같은 잔잔하지만 속이 세차게 흐른다는 의미이다. 넓은 동아리방이 특징이며 태권도 이외에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겸한다. 넓은 동아리방과 태권도를 원한다면 추천할 만한 동아리다.

백양로타렉트 @baekyang_dsu

자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 봉사 동아리로, 학기 중 시험 기간에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회식을 열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한울의 집, 아동센터 봉사를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 시간이 필요하거나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면 좋을 동아리다.

동아리 정보

문화예술분과

■HI : D (하이드) - 버스킹 동아리
•동아리방 : SP353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BLACK - 댄스 동아리
•동아리방 : SP311 •모집 기간 : 미정

■T.M.G - 게임 동아리
•동아리방 : SP344 •모집 기간 : 상시모집

■필름웍스 - 영상예술 동아리
•동아리방 : SP301 •모집 기간 : 3/4~3/10

■타키온 - 흑백사진 동아리
•동아리방 : SP323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한또바기 - 문학비평 동아리
•동아리방 : SP314 •모집 기간 : 미정

■있따 - 만화 동아리
•동아리방 : SP303 •모집 기간 : 3월~4월

■ALIVE - 락밴드 동아리
•동아리방 : SP351 •모집 기간 : 미정

■MIDMIX - 자율음악 동아리
•동아리방 : SP350 •모집 기간 : 개강 이후

■마하 - 연극 동아리
•동아리방 : SP346 •모집 기간 : 미정

■언플러그드 - 통기타 동아리
•동아리방 : SP352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외가람 - 여행 동아리
•동아리방 : SP310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체육분과

■여울 - 태권도 동아리
•동아리방 : SP325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블루돌핀스 - 미식축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18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쿨리터 - 볼링 동아리
•동아리방 : SP322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레드콕스 - 배드민턴 동아리
•동아리방 : SP319 •모집 기간 : 3/4~

■JOCKS - 농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17 •모집 기간 : 미정

■DASH - 축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49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ACE - 야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01 •모집기간 : 상시 모집

■HOOK - 농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04 •모집 기간 : 미정

■하랑 - 태권도 동아리
•동아리방 : SP324
•모집 기간 : 2월~3월 중순

■안전제일 - 보드 동아리
•동아리방 : SP312 •모집 기간 : 3/4~3/15

■백운 - 배구 동아리
•동아리방 : SP343 •모집 기간 : 미정

■바모스 - 테니스 동아리
•모집 기간 : 미정

봉사학술분과

■라포 - 봉사 동아리
•동아리방 : SP316 •모집 기간 : 미정

■더불어 사는 세상 - 봉사 동아리
•동아리방 : SP321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백양로타렉트 - 봉사 동아리
•동아리방 : SP320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CAN - 컴퓨터 학술 동아리
•동아리방 : SP313 •모집기간 : 상시 모집

■PRIC - 자기PR 동아리
•동아리방 : SP305
•모집기간 : (1차)
2/13~3/5



PRIC

자기 소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발표해 보는 스피치형 동아리, 자기PR 동아리다.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뱉는 연습,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 활동 중 좋았던 것,

부족했던 것 등 꾸준한 스피치 연습을 통해 보완하는 활동을 한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잘 내뱉는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동아리다.

손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으로 빛난 광고홍보학과

제21회 서울 영상 광고제 올해의 대학 선정되다



▶올해의 대학에 선정된 우리 대학

지난 1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 21회 서울영상 광고제 시상식이 진행됐다. 서울영상 광고제(Seoul Creative Award of Film Advertising)는 2003년 시작해 20년 동안 지속해서 개최해온 대한민국 유일의 영상 광고제이자 세계 최초의 온·오프라인 영상 광고제다.

서울영상 광고제는 '가장 대중적인 시선으로, 가장 공정하게'라는 구호로 진행되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상 광고 축제다. 광고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좋아하는 일반인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영상 광고제 중 YOUNG CREATIVE AWARDS(이하 YCA)는 학생들의 공모전 출품작, 졸업작품, 미공개작 등 2023년 한 해 동안 제작한 광고영상 작품 중 최고를 가리는 왕중왕전이다.

▲1차에는 1만5000여 명의 광고인과 네티즌 ▲2차에는 60인의 전문심사 심사위원단 ▲최종 3차에는 22인의 최종 본상 심사위원

단의 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그 결과 우리 학교는 YCA 부분에서 ▲그랑프리 수상(상금 2백만 원)과 ▲은상 두 작품 ▲동상 두 작품 ▲파이널 리스트 네 작품이 수상 하는 쾌거를 이룩과 동시에 ▲올해의 대학도 수상했다.

그랑프리 수상작인 <관세청_1하세우>는 마약 밀수 신고 번호가 125의 전화 키 패드가 한글의 '1'자 배열인 점에 착안해 마약 밀수 신고 번호를 기억하려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담았다. 은상 수상작인 <BABY WANTS>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위해 아이의 울음을 분석하는 장비를 소개하는 영상을 담았다. 동상 수상작인 <CRUSH MONSTER>는 분리수거를 할 때 캔을 찌그러트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캔을 편지 기계에 넣어 찌그러트리는 놀이를 제안하는 영상을 담았다. 또 다른 동상 수상작인 <AI sound for pregnancy>는 시각장애인을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단체 사진

위한 임신 테스트기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영상을 담았다.

위에 소개된 우리 학교 수상작들은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조대수 단장), LINC 3.0 (황기현 단장), SW 중심대학사업단(문미경 단장)의 지원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그랑프리 수상자인 성민재 학생은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서울영상 광고제에서 그랑프리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학교의 지원과 교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상 수상자인 김상희 학생은 작품이 많은 분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뉴미디어 시대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영상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전인적인 광고·홍보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맞게 광고 홍보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해 각 전문 분야별로 패키지식 교과과정을 마련하며,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작 실습을 통하여 영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영상교육 방법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동서 미디어 센터에 설치된 디지털 편집·녹음 장비를 활용해 최첨단의 영상 광고·홍보 제작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광고홍보학과는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독일 베를린 레드닷 어워드 ▲K-Design Award ▲Chip Shop Award ▲부산국제광고제 ▲스위스 글든 어워드 등 많은 대회에 작품을 출품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수상작은 서울영상 광고제 홈페이지 수상작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류길환 기자

iyw6284@gmail.com

야, 너두 영어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학생들

어떤 언어든 끊임없이 듣고, 말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매년 '동서 글로벌 영어프로그램(Dongseo Global English Program)'을 개최해 영어와 전공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신입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난 2월에 모집이 완료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 발음, 어휘,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유학 수준의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2024년 선발된 학생들은 입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원어인 교수진의 영어 수업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수업 9학점과 전공 및 교양 수업 9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 동안 총 18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영어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의 영역에서 진행되며 절대 평가 방식이다. 교재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 독해, 서술형 등의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

평균 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성적순으로 장학금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수료 후에는 최대 2학점의 수강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2학기에는 일본 아시아 대학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영어 수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2024년 글로벌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고 앞으로 더 큰 도전을 꿈꾸길 응원한다. 프로그램의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학은 60개국 1,000여 명 이상의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다. 외국인 학생들과의 소통



▶글로벌 영어프로그램 수업

과 교류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DSU Go, Global'은 한국인 재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서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려주며 소통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4회,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포함해 총 5주간 운영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매개로 한 온/오프라인 튜터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기간이 짧다면 약 3개월 동안 팀 미션을 수행하는 'DSU Buddy program'도 있다. 이 외에도 International college 주관의 'International Day'와 'International Culture Night' 축제가 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캠퍼스 버스킹, 플라마켓, 테이블 축구대회, 보물찾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작년에는 베트남과 중국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고,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학생들이 김밥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International Culture Night'에서는 국가별 춤, 노래, 연주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 대학 내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과 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3, 4학년들! 취업 준비 잘 하고 있어?

우리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소개합니다



▶스튜던트플라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 K-MOVE 스톨 캠프 참여 사진

학우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 잡코리아가 4년 대졸 취업생 706명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위 진로 정하기 (52.8%) ▲2위 직무 관련 경험 쌓기 (39.8%) ▲3위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33.3%) ▲4위 면접 관련 정보 찾기 (28.5%) ▲5위 기업 정보 찾기 (24.2%) 순으로 나타났다.

학우들은 취업 정보 수집, 자격증, 스펠리시트, 인턴십,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로 결정에 관한 고민, 취업에 관한 불안감, 해외 취업 방법, 취업 준비 설계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상담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 3, 4학년 말고도 일찍부터 취업에 관심 있는 1, 2학년 학우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듣는 말도 어둡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대학에선 학생들의 취업 관련 고민과 어려움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취업지원처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 내 24번 건물인 스텐던트 플라자 3층 SP308호 학생복지팀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진로·취업에 관한 고민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 창구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취업·생활·진로 3가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첫 번째로 취업 지원 부분에서는 진로, 취업, 청년 지원 정책, 사후 역량 관리 4가지 부분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진로 고민이 되는 학우들은 진로 분야를 통해 1:1 맞춤 진로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역량 개발 및 실무 경험이 필요한 학우들은 직무역량 강화 분야를 통해 온라인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및 IPP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K-MOVE 스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준비가 막막한 학우들은 구직 스킬 강화 분야를 통해 스펠리시트, 취업특강, 1:1 맞춤 취업 상담 및 인사지원서/면접 컨설팅, 취업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한 학우들은 청년 고용정책 설명회, 청년 진화제 정책 홍보 및 청년 지원 사업 참여 연계(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또는 만 34세 이하 지역 청년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가 보자. 관련 상담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우들은 현장 접수나, 카카오톡 채널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 친구 추가, 혹은 큐알 이미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단과 대학별 담당 컨설턴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취업지원센터'에서 유선 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사례나 수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활 지원에는 학생복지팀, 장학팀, 사회봉사센터, 장애 학생 지원센터, 보건실, 학생 생활 상담센터, 솔루션 데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학생 복지팀에서는 학생 활동 관련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실물 센터 운영, 총학생회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아르바이트 접수 및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진로 지원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존재한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생애 설계, 구체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자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여성, 경력 단절 미취업 여성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예방 및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해당 센터는 ▲K-Move스쿨 10년 연속 선정 ▲해외취업분야 청년드림 베스트프랙티스 선정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 프로그램 부분 대상 ▲장업선도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선정 ▲대학 취업창업 역량평가 부울경 4년제 대학 1위(한국경제) 등의 성과로, 우리 대학 내의 우수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주위에 취업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소개해 보는 건 어떨까.

자료를 참고 - 잡코리아, UPI뉴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새내기들, 장학금 받고 싶어?

학교 활동도 하면서 장학금도 받는 마이덱스



▶마이덱스 홈페이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마이덱스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마이덱스는 MY Dongseo EXperience의 줄임말로 동서대학교 재학생의 "핵심 역량&전공역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학생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마이덱스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동서고급, 진단 검사, 소단위 전공 과정, 상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그중 학생들이 주로 찾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전공수업과 연계해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으로 BDAD, 멘토·멘티 등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력이 증명서로 출력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증명서에는 재학 중의 모든 참여 이력과 학습 포인트가 지급된 대의 수상 및 자격증 내용, 디지털 배지가 함께 출력된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목록 안에는 학생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고를 수 있는데, 해당 교육 활동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그 전에 1년에 1회 "핵심 역량진단"을 꼭 실시해야만 한다. 해당 진단을 통해 1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학습역량은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공부에 필요한 능력 중에서 언어능력, 수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자기 관리학습 능력, 특정 주제 개인의 기초학습역량을 진단한다. 숫자를 통해 나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숫자는 문항에 표시한 점수 총합의 전체 평균 점수와

영역별 평균 점수다. 연 1회 참여하며, 기초학습 역량의 학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동서고급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한 최고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공을 초월한 365일 24시간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BDAD 학습 지원 시스템이다.

특히 새롭게 들어온 디자인 학부생들은 XCCT Online을 주목해 볼 만 하다. 이는 우리 학교 문화콘텐츠 특성화의 하나로 게임, 애니메이션, CG 특수효과, 웹툰, 방송, 디자인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늘리기 위한 강좌다.

네 번째로 소단위 전공 과정(특수 영역 학위 MD)은 개별 교과목의 상위 개념이자 전공(학과)의 하위 개념으로 9학점 이상 15학점 이하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미래 사회 유망 분야 핵심 직무 학습과 학생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융합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심화 MD는 전공 분야의 심화된 학문탐구와 핵심 직무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1건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융합 연계 MD는 전공 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 분야와 4차 산업 유망 분야의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소속 전공 교과목 외 타 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을 포함해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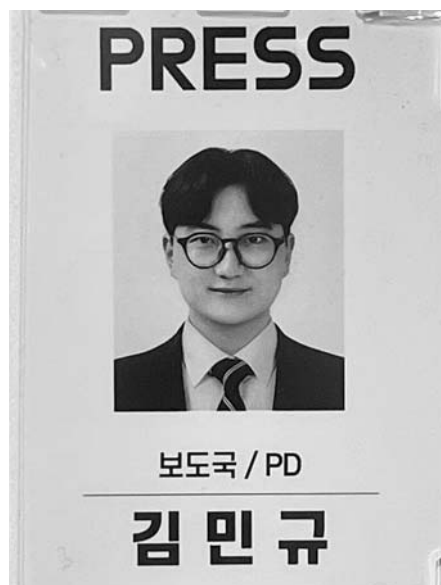
마이덱스를 잘 사용한다면 자신의 역량을 늘리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졸업생 인터뷰 - 방송영상학과 18학번 김민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동서인을 만나다!

방송영상학과 18학번 '김민규' PD 인터뷰



▶김민규 졸업생님의 사진

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덕분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좋은 회사를 만나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준비과정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신중 쓴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일은 취업 준비과정 중 번아웃이 와서 다 때려치우고 끊어도 좋으니 행복한 백수로 살 수는 없을까 생각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했다면 취업을 하지 못했겠죠?

신중 쓴 부분은 토익과 같은 어학 시험입니다. 수능 때는 분명 1등급이었는데 한번도 영어를 보지 않다가 다시 토익 시험을 쳤을 때 신발 크기를 조금 넓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어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규 졸업생님의 사진

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가벼울 땐 가볍지만 무거울 땐 무거운 중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게 제 꿈입니다.

Q. 대학 생활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졸업이 공부도 안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던 1학년 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수업도 많이 빠졌는데 누구에게는 후회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정말 행복하게 놀아서 전혀 후회되진 않습니다.

MT, 체육대회, 학교축제, 학술제 등 행사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후회 없이 논만큼 2학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Q. 학생으로서의 발돋움과 마치고 사회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너무 학교에서만 의지하지 말고 외부 활동도 재밌게! 친구들과라라도 좋으니 하나씩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채워질 겁니다. 일단 못해도 밀어붙이세요. 하면서 배우는 게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또한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을 뛰어넘는단 생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있을 겁니다.

대학교 4년,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행복한 일이 더 많아 정말 좋습니다. 짧은 행복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높이 도약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남학생들. 군대 2년은 진짜 20년처럼 갑니다. 수고하세요(웃음) 오늘도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류길환 기자 jyw6284@gmail.com

▶취업 같이 준비해요

중소기업에 도전해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취업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에 무엇일까?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억원 이하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피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 인식 부족, 신뢰 부족 등이 있다. 중소기업은 연봉이 낮고 야근이 많으며 복지가 부족하다는 인식, 다들 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피해야 할 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2~3개월마다 자주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기업은 퇴사가 반복되는 기업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자격 요건 없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채용 공고는 실제로 기본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100%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에 급여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영역, 기업 형태,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채용 직무가 명확한지, 업무 내용이 명확한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사 지원 시에 찾아봐야하는 내용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채 비율,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액, 영업이익률 증가 여부, 유동성 비율'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2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 유망 기업으로 간주하며,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130% 이상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업의 사업 분야와 경쟁 요소, 재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가고 싶은 회사가 아직 없다면 '청년 진화 중소기업' 블로그에서 찾아보자.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으며, 최근 3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가 없는 기업을 말한다. 2024년에는 533개의 청년 진화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정부 및 기업에서 인증한 여부와 수상 내역 등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매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기는 '벤처 천억 기업', 기술 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비노즈',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 등 잘 확인해 보길 바란다.

채용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신뢰할 만한 기업이 아닐 수 있으며, 기업 관계자들의 응대 태도와 면접관들의 준비 태도를 통해 기업의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직자들의 기업 리뷰를 통해 기업 만족도, 복지제도,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경영진 평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기업의 전반적인 신뢰를 위한 기업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채용 직무가 명확한지, 업무 내용이 명확한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소현 기자 mylife0936@gmail.com

전시 속의 풍경 - 마! 씨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

야구의 도시, 구도(球都) 부산



- 전시 제목 : 마! 씨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
- 전시 기간 : 2023. 12. 27 ~ 2024. 3. 17.
- 전시 장소 :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2층 기획전시실

D-19, 바로 2024 프로 야구 정규시즌 개막일이다. 19일도 하루도 기다릴 수 없는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전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시 <마! 씨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특별전이다.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야구, 특히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 자이언츠'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고 있는 전시 공간으로, 부산 야구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알려준다. 또 야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과 활동을 제공한다.

전시는 <구도 부산, 타석에 오르다>, <프로야구의 전성시대>, <내 주머니 속 야구>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구도 부산, 타석에 오르다>는 한국

야구의 기원과 부산 야구의 출발이다. 들어가자마자 한국 야구의 기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리돼 있다. 전시에 따르면 한국 야구의 시작은 1905년 선교단으로 조선에 온 윌리엄 선교사가 선교 목적 때문에 YMCA에 야구단을 창설한 것을 정설로 보고 있다. 또 부산의 야구 명문 고등학교들의 유니폼은 물론이고 아마추어 야구의 트로피나 홍보물 등이 잘 보존된 상태로 전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을 연고로 한 고교 야구팀들이 여러 전국 대회에서 큰 위세를 떨치며 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해 큰 인기를 끌게 됐다.

다음 <프로야구의 전성시대>다. 보통 프로야구의 전성시대라 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뜻한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싸인 유니폼을 볼 수 있다. 또 제1회 WBSF 프리미어 12 티켓부터 준결승 전 이대호 선수가 타점을 기록했던 배트, 결승 전 대한민국 선발 명단 오디저까지 쉽게 볼 수 없는 국제대회 기록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로는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 전시해 왔다. 롯데 자이언츠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구도 부산'에 걸맞게 전시 파트 중 가장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 선발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가 9이닝 4실점 완투승을 했을 때 실제로 착용한 글러브다. 또 1984년, 1992년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도 전시되어 있으며 롯데 자이언츠의 레전드 선수들의 개개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왔다.

마지막으로 <내 주머니 속 야구>다. 내 주머니 속 야구는 말 그대로 야구팬들의 주머니 속 야구에 대한 전시다. 오

랜 야구팬들이라면 누구나 추억에 젖을 만한 '공포의 외국인'과 롯데 자이언츠 구단 기념품들도 볼 수 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의 가장 근본 응원 도구라 할 수 있는 '주황 불다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육성 응원기 불가하던 사직야구장을 겨냥한 '짜짜'까지 눈을 땔 수 없는 공간이었다.

더불어 전시장 내에는 실제 야구 연습장도 마련돼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10:30~11:30, 14:00~15:00, 15:30~16:00)을 맞추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체험장 옆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의 응원가도 흘러나와 야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 원년부터 부산과 함께해온 롯데 자이언츠. 1984년과 1992년 두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2009년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1,380,018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부흥이 프로야구의 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기록 또한 열정적인 팬들의 사랑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야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구도(球都) 부산. 부산을 사랑하는, 야구를 사랑하는,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 나는 앞서 말했듯 이번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야구팬들에게 해당 전시를 적극 추천한다. 특히 '올해는 다르다.'고 믿고 있을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롯데 야구의 전성기와 선수들의 투지, 열정이 담긴 이곳을 방문하여 한국 야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이달의 영화 - 7번째 내가 죽던 날

비극 속에서 찾은 희극



- 영화 제목 : 7번째 내가 죽던 날
- 영화 감독 : 라이 루소 영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장땀을 흘려 다니는 사람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 겉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친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당신에게 비극적인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라이 루소 영 감독의 독립영화 작품인 '7번째 내가 죽던 날'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영화는 여자 고등학생 주인공 샘이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늦잠을 잔 샘은 황급히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아침 식사를 권유하는 부모님에게 무심경한 태도로 거절을 하며 여동생에게 또한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집에서 벗어난 샘은 자신의 친한 친구 린지, 엘리, 엘리오와 함께 린지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시시포스의 형벌'에 관해 배우던 도중 수업이 잠시 중단되는데, 큐피드 데이를 맞이해 장미꽃

배달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미꽃과 엽서를 받는 학생들. 이때 샘은 익명의 특별한 장미를 받게 된다. 장미의 주인공이 자신의 옛 친구인 캔트를 단 번에 알아챈 샘은 캔트에게 그러지 말라며 거절을 한다.

점심시간이 되고 샘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된다. 얘기를 나누다가 린지는 동성애자인 애나와 초등학교때 친구였던 줄리엣을 목하기 시작한다. 샘과 친구들은 그저 린지를 따라 두 학생을 목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린지가 그렇게 하나까. 이후 그들은 샘의 옛 친구인 캔트의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린지가 싫어하는 줄리엣도 등장한다. 린지와 친구들은 줄리엣을 '정신병자'라며 목하기 시작하는데, 괴롭힘을 당한 줄리엣은 샘에게 '넌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곤 파티에서 벗어난다.

화가 난 샘과 친구들도 자리를 뜬다. 린지의 차를 타고 파티를 떠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후 샘은 다음 날 눈을 뜨게 된다. 이상하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면 교통사고로 마무리됐던 그 하루가 반복된다. 이 반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긴 한 걸까? 샘은 반복되는 하루를 멈추기 위해 일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 날 하루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샘엔 이 비극적인 하루가 되풀이되는 거지만, 괴롭힘을 받던 애나와 줄리엣은 매일 새로운 비극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샘 자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남들을 괴롭히고, 나를 좋아하는

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매몰처에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를 깨달은 샘은 반복된 하루를 끝내기 위해 파티를 떠나는 줄리엣을 붙잡는다. 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시포스의 형벌'을 알아야 한다. 시시포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다. 그 벌은 바로 산 정상까지 동그런 바위를 올리는 것인데, 그 산의 정상은 너무나 뽕족했기 때문에 바위를 올리면 반대편으로 다시 떨어진다. 결국 영원히 그 벌을 받는 것. 이 영화에서 하루하루가 반복될 때마다 샘은 시시포스를 가트치는 장면은 꼭 나왔는데, 이렇게 시시포스를 중요하게 연출한 이유는 샘이 시시포스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는 허영심 때문에 주변인과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샘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건지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내기들이 그러하다. 갓 성인이 된 새내기들은 수많은 기회와 처음 겪는 일들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을 맞이할 것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시시포스의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화이트데이가 고민된다면?

선물부터 데이트코스까지



▶동아제약 ▶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가온 화이트데이. 올해도 평범하게 '사랑'을 준비 중이라면 잠깐 멈추고 이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지 고민하는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과 이색 데이트 코스를 추천한다.

선물

▶**림버리즈 에그 림밤 (28,900원)**
림버리즈하면 코로나19 때 소녀시대 티파니가 사용한 손소독제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림버리즈는 그 이후로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고 소장하고 싶은 패키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 브랜드에서 특히 '에그 림밤'을 추천한다. 에그 림밤은 말 그대로 '계란 모양'으로 총 4가지의 향을 가지고 있다. 향은 로즈우드, 밀크티, 언센티드, 우디그린으로 상대의 취향에 맞게 선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소지하며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림밤을 선물해보자.

▶**오소물 이윤 멀티비타민&미네랄7입 (38,000원)**
화이트데이 달콤한 사랑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소물 이윤'은 독일의 영양제 제조사인 이윤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영양의 균형을 잡아준다.
정제형 알약 2정과 액상 드링크를 한 번에 섭취하면 된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 망가진 영양 밸런스를 되찾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달바 ▶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달바 '오리지널 버전' 미스트 세럼 100ml + '다용량' 헤어 퍼프 세럼 100ml (39,900원)**
3월 환절기 시즌, 사랑하는 사람의 피부를 지켜줄 달바 미스트, 헤어 퍼프 세럼 세트를 추천한다. 달바의 스테디셀러인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은 오일 보습으로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 윤기가 가능하다. 또 달바 프로페셔널 린페이팅 헤어 퍼프 세럼은 호불호 없는 로제 프리지아향으로 손상도 케어까지 가능해 인기가 있다. 미스트부터 헤어 세럼까지 세트 선물하여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유소풀 세트 모리츠 향수 (58,000원)**
향에 대한 호불호가 고민되어 매번 향수 선물을 꺼리던 당신에게 '유소풀 세트 모리츠 니치향수'를 소개한다. 유소풀 (YOUSOPUL)은 "The scent stays here"이라는 문장을 앞세워 다양한 향의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그중에서도 세트 모리츠는 '화이트 마스크' 베이스로 무겁지 않은 향을 가져 데일리 하게 사용하기 좋다. 그렇기에 가벼운 향을 좋아하는 사람,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는 사람, 파워더 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컬피터 Vintage Canvas Duffel Bag (72,000원)**
마지막 추천 선물은 바로 스컬피터의 'Vintage Canvas Duffel Bag'다. 컬러는 Black과 Pale Gray 총 두 가지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이 가방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뛰어난 수납력이다. 많은 물품을 들고 다니는 흔히 말하는 '보



▶뷰지엄원 ▶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부상'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가방이 아닐 수 없다. 또 노브록은 물론이고 태블릿 피시나 간단한 여행 짐도 챙길 수 있을 정도이다. 정가가 72,000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으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할인이나 쿠폰을 노려 구매한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선물이 될 것이다.

공연

▶**부산 시립 합창단의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특별한 화이트데이, 밥, 영화, 카페 말고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가 없을까? 부산 시립 합창단의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를 추천한다. 티켓은 균일 20,000원과 예매자 1인 1개로 다과도 제공된다. '사랑'을 주제로 한 감미로운 음악과 토크 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문화회관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연도 보고 다과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화이트데이가 될 것이다.

전시

▶**뮤지엄 원의 <상실의 징후들>**
사랑하는 사람과 색다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뮤지엄 원 방문을 추천한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뮤지엄 원은 미디어 아트 현대 전문 예술관으로 현재는 '상실의 징후들'이 전시 중이다. 관람료는 어른 18,000원이다. 전시 중 거울 전시가 있어 바지를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 미디어 아트 전시이기에 흰색 상의를 입고 간다면 더욱 감동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손민지 ▶사진출처 - pixabay

삼각대 반입은 불가하지만 촬영이 가능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이색적인 사진으로 화이트데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액티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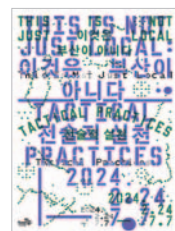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작년 말 새로 개장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테마파크를 소개해 주고자 한다. 지루한 데이트 코스를 바꾸어줄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에서는 크게 3가지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질러인'이다. 따뜻한 불이 다가온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다 위를 날아보는 건 어떨까? 다음은 'MOED'이다. 이것은 미디어 아트 전시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릴온더머그'. 앞에서 질러인과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 후 스릴온더머그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자. 한 곳에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곳을 추천한다.

진심

특별한 선물부터 이색 데이트 코스까지 어느덧 화이트데이 준비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는 것, 바로 '진심'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가득 담긴 손 편지를 써주는 것은 어떨까?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진심을 전할 수 있지만 손으로 쓰는 편지는 분명 또 다른 감동을 불러올 것이다. 모든 것이 전자화된 요즘 아날로그 감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보자.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축제·공연 소식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 전술적 실천

- 기간 : ~2024. 7. 7. (일)
- 장소 : 부산현대미술관
- 입장료 : 무료



레베카 - 부산 앙코르

- 기간 : ~2024. 3. 10. (일)
- 장소 : 드림씨어터
- 입장료 : VIP석 17만 원 | R석 14만 원 | S석 11만 원 | A석 8만 원



2024 드럼소코리아

- 기간 : ~2024. 3. 8. (금)
- 장소 : BEXCO 제1전시장
- 입장료 : 현장구매 1만 5천 원



이서림 타악 독주회

- 기간 : 2024. 3. 9.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 전석 1만 원



연광철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 기간 : 2024. 3. 13.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R석 6만 원 | S석 4만 원 | A석 2만 원



제13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 기간 : 2024. 3. 23.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무료



2024 윤하 20주년 기념 콘서트 <스물>

- 기간 : 2024. 3. 23. (토)
- 장소 : BEXCO 제1전시장 1홀
- 입장료 : R석 14만 3천 원 | S석 13만 2천 원 | A석 12만 1천 원

대학 생활 완전 정복!

재학생이 알면 좋은, Tip 6가지



▶ 학생 복지 스토어 할인 혜택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한다! 꽃피는 3월, 다가온 개강.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캠퍼스에 들어왔을 여러분들에게 대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알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고자 한다.

#어도비 Creative Cloud 할인 혜택

디자인 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 학생들은 주목! 어도비 Creative Cloud 60% 할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첫 해 월 23,100원 이후 월 35,2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12개월의 연간 플랜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포토샵, 에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그 외의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혜택을 받아보자.

#학생복지스토어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는 조별 과제를 하거나, 수업 필기 시에 유용한 대학생의

필수템이다. 전자기기는 가볍고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복지스토어는 다른 스토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기기를 구매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학생복지스토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자. (www.univstore.com) 국내 대학 생활 플랫폼인 '에브리타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대학생 인증을 완료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애플, 삼성, LG, Sony, Bose 등 사고 싶었던 제품이 있었다면 여기서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단, 2024년 기준 2017년 이전에 입학한 경우와 새내기를 인증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부는 어디서?

"고3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공부?"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3월만 지나면 우리에게도 4월의 꽃 증강고사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대학 공부하기 좋은 곳은 어딜까. 바로, '민석 도서관 자유 열람실'이다. 민석 도서관 입구 왼쪽에 위치해있으며, 들어가면 앉아있는 교직원



▶ 오피스365를 무료로 사용하세요

에게 모바일 학생증을 보여주고 입장할 수 있다. 이곳은 2020년에 새롭게 리모델링 됐는데, 1층과 지하로 나뉘어 있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 가능하다. 콘센트도 자리마다 구비돼 있어 전자기기 사용도 편리하다. 모바일 학생증은 '동서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스튜던트 플라자 내의 크리에이티브 플라자 공간'이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시험 기간에는 일찍 와야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넓은 책상, 창문 방면의 1인용 독서실 책상, 서점 내 휴식용 소파 공간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학교 내에 많은 교내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대표적인 카페는 동서대학교 유투브의 카페 소개편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란다. 추가로 뉴밀레니엄관 2층 'SW 중심대학 사업단 상상스퀘어' 공간이다.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는 TV와 화이트보드와 있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회의를 하거나 함께 공부하기 좋은 공간으로 추천한다.

추가로 '투스플래이스(부산 주례역

점)'에서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음료를 사이즈업해 마실 수 있다. 1학년부터 학점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니, 새 학기를 맞아 뜨겁게 공부해 보자!

#오피스365 무료 이용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정품 '오피스365'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우리 대학 홈페이지-IT서비스-오피스 365 및 E-메일 이용 안내 코너'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자. 오피스 365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오피스 계정은 (학번@office.dongseo.ac.kr)로 제공된다. 오피스 365는 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해 제공되며 1인 1 계정 발급이 가능하다. 워드, 파워포인트를 자주 사용하는 재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AP는 해외의 자매대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

학을 통해 외국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한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연수할 수 있다. 1학기(9월 초~12월 말), 2학기(1월 중순~5월 중순) 한 학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 집중 연수를 받게 된다. 수업료, 항공료,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Q-college GELS 챌린저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을 따라 국내, 해외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도전 정신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우리 대학만의 프로그램이다. 본교 재학생 중 졸업까지 잔여 학사 과정을 본교에서 마칠 학생들이라면 성적, 면접을 미리 준비해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

우리 대학의 경사는 아주 가파른 편이다.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뒷동네 건물들

을 가야 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마음버스 2번과 3번을 타면, 글로벌빌리지 지하주차장 앞에 내릴 수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엘리베이터는 기숙사 입구인 7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기숙사 입구에서 나오면 UIT 건물에 있다. UIT에서 5층은 뉴밀레니엄관 1층, UIT 건물 6층은 뉴밀레니엄관 2층과 연결돼 있다. 뉴밀레니엄관에서 4층은 디자인 홀 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디자인 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와 연결돼 있다. (3층) 체플 수업을 들을 때 주로 이용하며, 고장났을 경우에는 옆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한다.

어문관 6층은 국제관 2층, 국제협력관 6층은 경영관 2층과 연결돼 있다. 뒷동네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이용 방법을 잘 확인하고 수업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수강 신청을 할 때 이동할 건물을 가깝게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선배, 밥 사주세요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22학번 김재원 기자가 알려주는 맛집



▶ 식사하고 있는 사진

▶ 사진출처 - pixabay



▶ 원삼족발 건물 사진

▶ 네이버 업체등록 사진



▶ 전원일기 건물 사진

▶ 네이버 업체등록 사진

4년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뭘까? 바로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이 가장 많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 학교 근처에는 맛집이 많기 때문에 더 고민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학년 김재원 기자가 맛집을 직접 찾아다녀왔다.

#원삼족발

첫 번째 맛집으로는 부산 사상구 냉정로 115 1층에 위치한 원삼족발집이다. 냉정역 1번 출구 30m 사상 방면 도보 첫 번째 오르막 좌회전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100m 직진 오른쪽 부일약국 옆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영업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10:00~23:00 라스트 오더-22: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다.

가게에 들어가면 메뉴들이 벽에 종이로 쓰여 있다. 전체적으로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게 돼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2인 메뉴에 단돈 5,000원만 지불하면 곱빼기로 주문할 수 있다. 많이

먹는 대학생들을 배려하는 사장님 마음이 느껴진다. 또 현금 결제를 하면 소주, 캔 음료, 미니 막국수 중에 하나를 공짜로 시킬 수 있다. 그 전에 사장님한테 미리 말해야 한다.

주메뉴인 족발이 나오기 전에 기본 찬으로 콩나물국이 나온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소주 한 잔하면서 기다리기엔 충분하다. 대학생들이 주로 시키는 메뉴는 불족발과 기본 족발이다. 불족발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먹을 만한 맵기였다. 기본 족발은 부드럽고 잡내가 나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으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족발에 소주 한잔할 수 있는 가게다.

#전원일기

두 번째 맛집으로는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18번길 74 1층에 위치한 전원일기 마제소바집이다. 영업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11:30~20:30 라스트 오더-20:00

11:30~15:30 라스트오더-15:00까지도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만큼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많이 찾는 맛집이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면 대기가 있을 수 있기에 빨리 와야 한다. 1, 2, 3인 테이블이 있는 데 1인 전용 테이블 있어 혼자 밥 먹기에 좋다. 주문할 때 카운터에 가서 선결제하면 된다. 못 먹는 채소나 토핑은 사장님께 말하면 제외해서 준다.

주메뉴인 마제소바는 먼저 대과, 쪽파, 김, 계란, 다진 고기 등이 들어가 있다. 위에 영롱한 계란 노른자가 올라가 있고 고소한 대만식 향이 난다. 먹다가 다시마 식초 2~3바퀴 둘러서 먹으면 감칠맛이 올라가면서 더욱 맛있어진다. 마제 소바는 양념이 맛있기 때문에 서비스밤을 비벼서 먹으면 더욱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

그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계살튀김은 전자 안에 계살이 들어있는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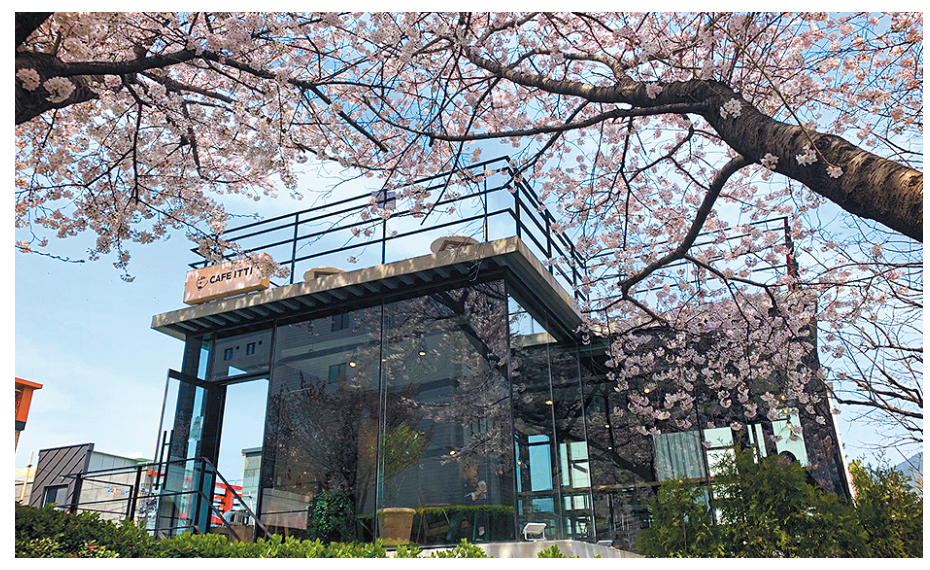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인스턴트 계살튀김이 아닌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마제소바와 함께 먹기 좋다. 보통은 가라야게와 마제소바를 같이 먹지만, 계살튀김과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영수증 이벤트가 있는데 포토 리뷰를 하면 음료를 공짜로 준다. 리뷰 작성 후 직원한테 보여주고 냉정고에서 원하시는 음료 들고 가면 된다.

식사가 끝나면 카운터에 후식으로 사탕을 준다. 식사가 사탕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다.

#카페이띠

식사가 끝나면 많이들 커피를 마시러 간다. 특히 우리 학교 주변에 카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이 될 수 있다. 그 중 루프탑이 있는 빛꽃 명소 '카페이띠'라는 카페가 있다. 동서대 정문에 자리 잡고 있고 영업시간은 매일 아침 9시 오픈, 저녁 9시 마감하고 있다. 아메리카노는 포장



▶ 카페이띠 건물 사진

▶ 네이버 업체등록 사진

구매하면 18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인에는 우드 가구들로 인테리어 되어 있다. 분위기도 또한 조용하기 때문에 혼자 할

링하거나 공부하고 싶을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 김재원 기자
jw30031121@gmail.com



임광산 맑은 소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김률희 (게임학과·3학년)

두 달간의 방학이 지나고 어느덧 새 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이르고 긴 방학이건만, 왜 이리도 짧게 느껴지는지, 중·고등학생의 방학은 쉬고 재충전하는 거라면, 대학생의 방학은 공부하고 정진하기 위한 시간이라 그런 걸까요.

올해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고학년이 된다는 것은 입학보다 졸업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던 미래와 진로를 확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게임학과에서 2D그래픽 아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싶은 풍경이나 사람을 직접 그리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림 그리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왔고, 그나마 잘하는 일 중 하나인데, 이 세상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니다. 잘 그리는 사람은 더 많고요. SNS, 인터넷에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2D아트 동기의 모니터 속 작업물을 보며 부쩍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와,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다' 하는 부러움이나 열등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으로 졸업하고 그림 그리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의문과 불안감이 무기력하게 만들

고 그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울해지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나는 물음이 메아리칩니다. 어떻게든 목표를 세워 그리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멍해지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할 듯싶습니다.

하루에 끝내야 할 양을 모두 끝내지 못하면 그날 밤 피곤한 몸으로 자학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날 무기력한 몸을 이끌며 모니터 앞에 앉으면 어제 다 못한 일이 화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었는데, 정신도 못 차리겠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약순환입니다. 마감 기한을 놓칠 것 같아 미리 사과 드리고 멍하게 앉아 떠오르는 불안을 끄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스물둘이나 먹고 멘탈 관리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또다시 자학에 빠지게 됩니다.

약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고쳐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런 불안이 심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그날은 특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로 고민 하나라도 불안해 죽겠는데, 왜 이런 사념이 찾아오는 것인지 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없어질 테고, 부모님이 찾아와 학교를 뒤집어 놓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을 거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살아야 하니깐요. 당장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꾸르고 깨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새 각오를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제가 내 결론이었습니다. 허무해도 정실인이라 짜증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힘든 대학 생활, 지난 학기 또는 일시생 시절 동안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머리와 몸을 이끌고 억지로 각오를 다지며 살아오셨지요. 성적을 죽 쏘고 과제를 망쳐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재시작하셨지요. 만일 다시 해내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한 결국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4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며 인간은 진화하고 적응하는 중입니다. 지난 각오와 이루는 과정이 어땠는지 복기하고 일어나다 보면 불만해지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먹고 살 수 있을지 막연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살아가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죽비소리

리셋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이로써 부모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우리가 갑작스레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주위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 온 곳에서는 교수님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대한 초석을 닦아야 하곤 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금 설정해야 하는 '리셋'이란 번씩 존재할 뿐이다.

'리셋'이라는 말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초기화, 재설정 등의 의미이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풀이하자면 '다시 시작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다시 시작한다라, 한편으로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해 왔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 왔다. 모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더 확장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흥미거리들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셋'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훌륭한 발판이 될 수

도 있다. 물론 두렵고 걱정될 수도 있다. 당장의 바뀐 환경이 본인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듯 '리셋'의 연속이기도 하다.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금 적응하는 일이 걱정되고 부담스럽겠지만 분명 힘든 것만큼 얻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어릴 적, 완벽한 인생을 추구한 적이 있다. 때문에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계획한 후 그에 맞게 걷거나, 쓰고, 자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완벽한 삶 이전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히 이러한 것은 자심심을 못 넘겼고, 결국 필자는 극도의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던 나의 발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그러한 것은 아무 의미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 왔다. 조금 못나거나 부족한 것들을 보며 이들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지금이 당장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그러한 열정과 성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들로써 또 하나의 '리셋'이 될 거라 생각한다.

우리의 마지막 리셋은 결국 '죽음'이다. 앞으로 수십 년은 넘게 남은 일이지만 언젠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다. 그러한 인생에서 잔잔하게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은 매 순간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리셋'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오늘도 빛나는 리셋을 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손준혁 기자
sih730688@gmail.com



사설

급증하는 청년 부채, 해결책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5%로 주요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장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2019년에는 이미 선진국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주요국과 한국 모두 공통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2020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에서는 2021년부터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증가하며 부채 규모가 감소하는 데라버리지(deleveraging)가 이루어진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재차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한국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큰 특징 중 하나는 청년 위주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20대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대출 증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8월 2일에 82 부동산 대책(이하 82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등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다.

하지만 이 82대책으로 인해 청년들의 신규 주택 청약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대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겹투자, 전월세

수요, 주식 투자 열풍, 온라인 비대면 신용 대출 등이 증가했다.

최근 청년층의 대출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약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의 급증,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제약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경험은 적은 청년층은 전세 사기와 불법 주식 '리딩방' 등과 같은 사기성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고금리 현상의 여파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빚 부담이 커지고 이를 갚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악성 부채로 발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은 미래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신용이 추락하고 이에 따라 향후 제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스펙과 청년 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 △청년들의 불법 금융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청년 대상 금융 관련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 청년들의 대출 정도, 주요 대출처 등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불법 금융에 연루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마련도 시급하

다. 중고등학교에서 금융 및 신용 교육을 강화하거나 대학 입학 시 필수 교양 과목으로 관련 수업을 도입하는 등 청년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 1만 명과 5천 명을 나눠서 진행한다.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은 국제 재무 설계사와 재무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다른 금융 상황과 목표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자산 형성보다는 부채 해결이 시급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관리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영테크 밀어줄' 사업과도 연계되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다. 개인 역시 스스로 금융과 경제에 관심을 두고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목회칼럼

영광스러운 새출발의 첫걸음



최민구 교육실장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재부팅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중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재부팅을 하면 수행하던 작업물을 잃게 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꽤 오랜 시간 수고한 노력이 허사가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작업의 완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인생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부담을 떨쳐내고 재부팅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부팅 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재창조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하던 작업을 잃어야 하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부인하는 의미가 갖는다. 그리고 원점에서 서서 다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재밋게도 원점에 서서 새출발하려 할 때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기억한다.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다.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부친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워하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나간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존재다.

그런 그가 훗날 야곱의 12 부족 중 한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고 그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거대한 거인족이 있어 부담스러운 지역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선 스파이 출신의 지휘관 갈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후에도 탁월한 스파이 살론, 다윗 왕과 솔로몬왕을 배출하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유다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얻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난을 통해 재창조됐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슬픔을 겪고 있음을 전제하고 인생을 포기한 듯 산다. 그 모습을 본 유다는 집을 나가버린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 셋을 장성시켜 장가를 보낸다. 그런데 허사가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작업의 완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인생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부담을 떨쳐내고 재부팅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부팅 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재창조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하던 작업을 잃어야 하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부인하는 의미가 갖는다. 그리고 원점에서 서서 다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재밋게도 원점에 서서 새출발하려 할 때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기억한다.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다.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부친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워하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나간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존재다.

다한다. 두 번째 식량을 얻으러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집트 총리의 명령이 있었지만,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해왔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말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설득한다. 그러나 이집트에 내려가 베냐민을 총리의 노예로 빼앗길 상황에 부닥치자, 유다가 대신 노예를 자처한다. 이렇듯 모든 어려움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후대에 놀라운 가문이 된다. 재창조된 것이다.

유다는 여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자다. 그가 다시 시작하는 지점은 고난의 아리지를 내려가 베냐민을 총리의 노예로 빼앗길 상황에 부닥치자, 유다가 대신 노예를 자처한다. 이렇듯 모든 어려움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후대에 놀라운 가문이 된다. 재창조된 것이다.

유다는 여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자다. 그가 다시 시작하는 지점은 고난의 아리지를 내려가 베냐민을 총리의 노예로 빼앗길 상황에 부닥치자, 유다가 대신 노예를 자처한다. 이렇듯 모든 어려움이 책임지는 자세, 곧 십자가 지는 자세로 살았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뜻의 서양 명언이다. 인생은 누구나 영광스럽지 않다.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 보면 자신의 죄가 깨닫히고 무엇을 고치고 바뀌어야 할지 알게 된다. 깨달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영광스러운 새출발의 첫걸음이다.

■ 학생 인터뷰 - 방송영상학과 장혜원

■ 학생 인터뷰 - 웹툰학과 김새봄

또 다른 시작, SAP

SAP-USA로 새로운 시작을 했던 장혜원 학생과의 만남



▶ 장혜원 학생



▶ 그랜드캐니언에 방문한 사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써 내려갈 새 학기, 색다른 시작을 할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SAP를 다녀온 방송영상학과 장혜원 학생을 만났다. 준비 과정부터 조언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 앞둔 방송영상학과 4학년 장혜원입니다.

Q. SAP에 대해 잘 알지 못할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SAP는 Study Abroad Program의 줄임말로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의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2학기에 SAP-USA에 다녀왔습니다.

Q. SAP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또 그중에서도 왜 미국이었나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을 따라하고 싶어 애니메이션 '십승'을 보며 세도우 스피킹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이란 나라에 가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교환학생과 같은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꼭 해보아겠다고 생각하다가 SAP-USA에 지원하게 됐고, 좋은 기회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Q. SAP를 가기 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나요?

A. SAP-USA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CBT 시험을 쳐야 하는데 급하게 쳐다보니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첫 시험 점수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해 다시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갈 시기에 국제 정세로 인해 달라 환율이 거

의 1,500원대에 육박해 조금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Q. 그렇다면 SAP를 가서 좋았던 일이나 얻은 것이 있었나요?

A. 해외에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는 미국 국적의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 맞은 편에는 큰 대학이 하나 더 있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말을 섞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맞을 때 함께 스케이팅 보드도 타고 저녁을 초대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다른 매력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르고 넓은 바다는 물론이고 그랜드캐니언을 직접 보며 자연에 압도당한다는 말을 평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 야구선수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소속되었던 Los Angeles Angels의 홈구장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SAP-USA를 이수하며 인생을 살면서 평생 회자할 만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삶의 동기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Q. 또 반대로 SAP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A.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것은 남은 여유 시간에 낯잡을 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정신적으로는 시차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적응하지 못해 낯잡을 잤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아껴 주변을 더 둘러볼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조금 더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Q. SAP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분들이 SAP를 가신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게 되면 낯선 환경 탓에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 노는 경우가 많을 텐데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놀며 진짜 미국을 느끼길 바랍니다.

면접 부분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면접 준비 때 예상 대안을 준비할 텐데 이때 입 밖으로 많이 뱉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말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에 많이 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SAP를 간 한 학기 동안은 자신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드라마틱한 영어 실력의 급상승을 바라기보다 영어로 말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에 초점을 두면 좋습니다. 학점 또한 좋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학과가 아닌 경우 부정공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의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A. 우리 대학처럼 이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고민 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SAP에 지원하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짧을 때,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하자'며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조건 잡으시길 바랍니다. Just do it!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새내기, 새로운 출발을 연다

24학번 새내기 김새봄 학생과의 만남



▶ 김새봄 학생



▶ 김새봄 학생이 그린 팬아트

새롭게 시작하는 24학번 신입생들. 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은 어떨까? 우리 대학에 올해 입학하는 24학번 김새봄 학생에게 물어봤다. 새내기의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4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웹툰 학과 김새봄입니다.

Q. 본인의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자서 스토리 짜는 것도 좋아하고, 그때 '월드업'이라는 웹툰을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연출과 스토리가 너무 좋고, 감정을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부터 웹툰 학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캠퍼스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생각하고 있던 거였는데, 웹툰 학과 쪽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알아보니 학교에서 웹툰 학과를 다양하게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웹툰 학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Q. 새내기가 된 기분이 어때요?

A. 너무 떨리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들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처음 해보는 수강 신청 성공할 것 같나요?

A.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은 저만 원하는 과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보다도 집중하려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보고 싶네요!

Q. 대학교에서의 로망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입학하고 나서 꼭 동기들을 모아서 팀 대항전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가 더 있다면 교환학생이요. 언어 공부도 하고, 성적을 맞추어서 꼭 가보고 싶네요.

Q. 대학교에서 나는 O.O를 꼭 해보고 싶다면?

A. 교환학생이 되어보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애니메이션도 아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짧게라도 만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다른 과가 찾아와도 놀라지 말아주세요. 그저 배우고 싶은 학생일 것입니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Q. 대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고 싶나요?

A. 당시에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칸 화해를 그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연출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그 칸에 맞는 연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Q. 창작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A. 네. 연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고 스토리 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하다 보니깐 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Q. 연출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제가 좋아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쟁겨보니까 연출이 정말 탄탄해 그 부분에 꼭 빠져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트리거'라는 제작사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화면을 되게 잘 쓰거든요.

Q. 제작사에 대해 되게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그중에 자신만의 최애 애니메이션도 있나요?

A. '강철의 연금술사'인 것 같아요. 버전이 두 가지(구작, 신작)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스토리가 너무 완벽하고, 작가가 아니 속해 계속해서 나오는 연금술에 대한 개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보시고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어요.

Q. 이제 입학하면 과제를 하게 될 텐데, 단편 웹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A. 제가 정말 장르를 안 가려요. 호러도 좋고, 로맨스도 좋고. 그래도 가장 1위를 뽑는다면 판타지예요. 그중에서도 전통 판타지인데 주인공이 모험하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참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마법사의 모험 서사'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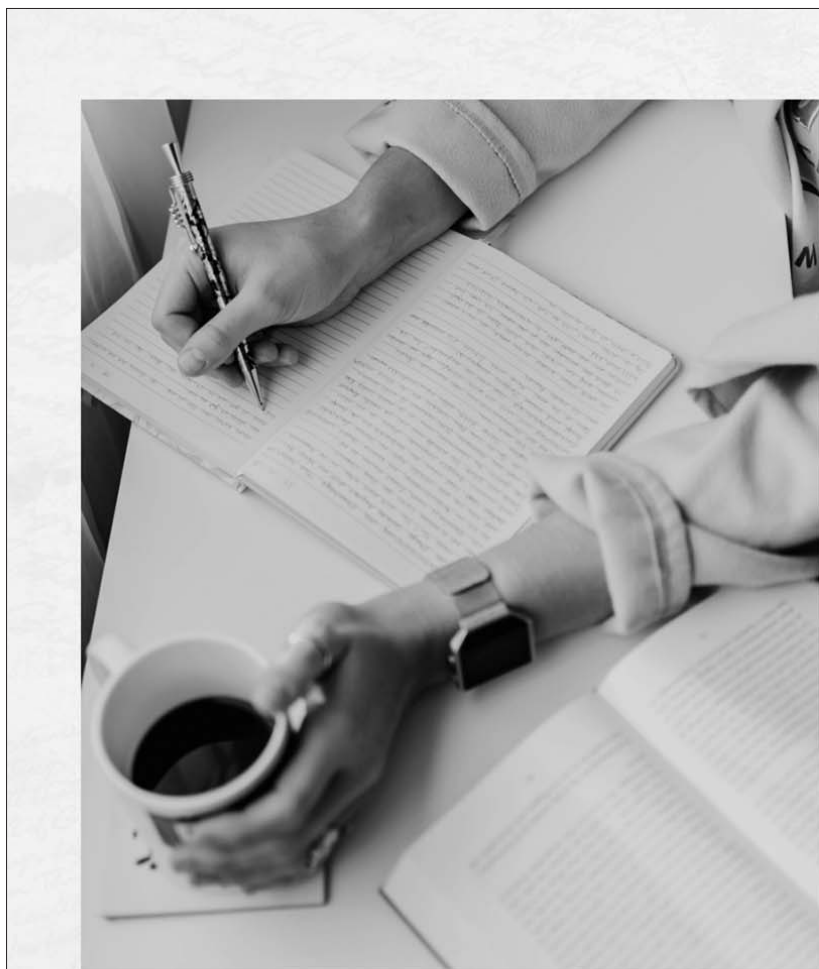
Q. 올해 이루고 싶은 신년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될 수 있다면 올해 연출과 스토리에 대해 배워서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단편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1년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만든다면 부끄러워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은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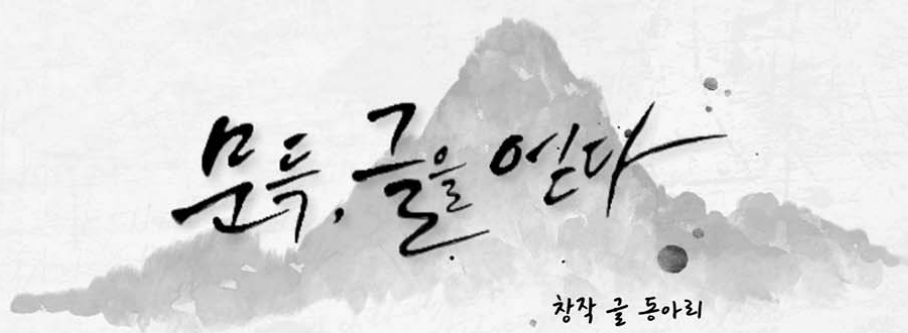
A. 안녕 친구들아! 우리 모두 잘 지내보자! 앞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웃긴 일들도 있겠지. 우리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일상을 사이에서 웃고 떠들면서 아픈 일, 슬픈 일처럼 어려운 일들도 한번 잘 헤쳐 나가보자! 앞으로의 몇 년 동안 잘 부탁해. 아직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는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노력할 거니까! 함께 잘 지내보자!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팬 글을 읽은 사람들을 모으자
그당 서로의 문장을 매듭지어
새끼손가락에 흑색 실을 맺어주자
그리고 문득이란 이름을 지어주자

- 문장 文葬 (정성혁)



창작 글 동아리

모집 기간 : 3월 4일 ~ 11일 자정
신청 방법 : 이메일 (jw020211@naver.com)으로 이름, 학번, 연락처와 본인이 쓴 자유글 첨부
지원 자격 : 방송영상학과 학생
관련 문의 : 010-8431-0618

TALK

생활/진로/취업 고민이 있다면?

P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

1:1 진로/취업 컨설팅
청년 고용 정책 및 혜택 안내
IPP형 일학습병행제
K-MOVE스쿨 연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051-320-2716

학교
수습기자
결산
모집

DSU 동서대학교

같이



만들자



신문

모집기간
2월 23일 ~ 3월 13일

학생회 대학 현장 알리기 프로젝트

2024 동서대 신문사
모집 공고

모집대상 | 학년/학과 무관 학생 누구나
가입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모집)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편집국장 : 김소현 (문의 : 010-7211-0936)

mylifec0936@gmail.com